

# 버클리의 관념론적 도구주의 과학관

버클리는 근대 영국 경험론을 확립한 철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모든 인식이 경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로크의 입장을 계승하였다. 인간의 마음은 아무 것도 쓰여 있지 않은 '백지' 상태와 같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식 내용뿐이라는 것을 확신하였다. 그런데 그는 로크와 달리 이러한 의식 내용이 물질적 대상을 통해 생겨난다고 단언할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 우리가 흔히 감각 인상을 통해 물질적 대상들에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참일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 인상이 대상들을 '복사'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충분한 설명이 못 된다. 어떻게 색깔이나 소리와 같은 경험이 '경험이 아닌 어떤 것'의 사본일 수 있을까.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간 지식의 원리'에서 이렇게 말한다.

“...천상의 성가대와 이 땅의 부속물들, 한마디로 세계의 거대한 골격을 구성하는 모든 사물들이 정신없이 존재하지 못한다. 그 존재는 지각되거나 알려져야 한다. 따라서 그것들이 나에게 의해서 실제로 지각되지 않거나 나의 정신 혹은 다른 인간의 정신 속에 존재하지 않는 한, 그것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어떤 영원한 신령의 정신 속에 존재해야 한다.”

그리스도교도이고 성직자이기도 했던 버클리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무한한 정신이며 경험을 통해 우리와 교감하는 신의 정신에 따라 모든 실재가 존재한다는 논변을 전개하였다. 말하자면 신이 인간의 정신을 자극하여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체계로 감각들이나 관념들을 정신 속에 만들어 놓는데, 이 결과를 우리는 '자연'이라고 부르는 셈이다. 신은 인간의 의식에 관념들을 일정하게 산출 시킴으로써 존재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버클리의 입장은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이

## 버클리, “존재하는 것은 지각되는 것”

버클리에 의하면 인식의 주체와 상관없는 독립적인 물질, 로크도 개념화할 수 없다고 인정한 물질적 실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당화할



글\_엄정식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jsumek@hanmail.net

글쓴이는 서강대학교 철학과 졸업 후 웨인주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철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다”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흔히 주관적 관념론이라고 하며, 그의 과학관도 이러한 관념론에 근거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물체는 지각되지 않기 때문에 정신만이 유일하게 인과적으로 작용할 뿐이다. 따라서 뉴턴이 말하는 힘은 인과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 뉴턴은 로크가 제시한 관념의 객관적 측면인 제1성질과 주관적 측면인 제2성질의 구분을 받아들였다. 가령 크기, 모양, 운동, 정지 등은 객관적 성질로서 우리는 그것을 사실 그대로 인식하지만 색깔, 맛, 향기 등은 우리의 주관적 상태일 뿐이다. 사실 이러한 구분은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색 감각의 원인은 빛이다. 색깔은 일정한 크기의 파장을 가진 광파가 시각 기관을 자극할 때 일어난다. 색 감각은 이 기관의 흥분 상태에 대한 우리의 느낌이고, 빨강이나 노랑이라는 관념은 이 느낌에 대한 인간 나름의 표현이다. 광파는 그 자체로서는 색깔이 없고 천연색의 세계는 감각의 흥분 상태, 즉 주관적 상태에 이름을 붙임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가령 인간에게 빨강이라는 감각을 일으키는 그 광파가 두더지나 물고기의 눈을 자극했을 때 여전히 같은 경험을 할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두더지는 그것을 따갑다고 느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의 색 감각은 감각의 변화에 대한 ‘인간’ 나름의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크기나 운동 같은 것도 인간의 주관적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뉴턴은 힘에 관한 수학적 상관관계를 정식화하는 것과 힘 그 자체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임을 강조하였다. 가령 그는 굴절과 중력에 관한 수학적 이론과 빛과 중력의 ‘실재적 본성’에 관한 가설을 구분하였다. 버클리는 그의 이러한 입장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는 힘이 마치 방정식에 나타난 요소항 이상의 그 무엇인 것처럼 기술한다는 점에 불만을 나타냈다. 버클리는 역학에서의 힘이 천문학에서의 주전원과 유사하고 이러한 수학적 구조는 물체의 운동을 계산하는데 유용하지만, 수학적 구조가 세계의 실재적 존재라고 믿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버클리는 물체가 스스로 운동할 수 없으며, 그러한 힘은 일련의 방정식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뉴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인력’, ‘응집력’, ‘용해력’에 관한 언급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결국 ‘힘’은 수학적 존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운동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이것을

“수학적 존재는 사물의 본성 속에서 불변의 본질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정의하는 사람의 개념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동일한 사물이라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형이상학적 입장에서 '도구주의적 과학관' 도출

버클리에 의하면 역학의 법칙은 현상의 기술 및 예측을 위한 계산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또한 법칙이나 여기에 표현된 함수적 종속 변수가 자연에서 존재하는 그 무엇, 혹은 물질적 실체를 지칭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특히 ‘인력’, ‘작용’같은 용어는 어떤 대상에 대한 지식을 주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용어가 역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일련의 사건을 예측하는 이론 속에서 그 용어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버클리에 의하면 과학은 일종의 지도 작성법이 아니다. 과학 법칙과 과학이론은 지도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도 위의 모든 표기는 지역의 특징들을 지칭하기 때문에 지도의 타당성은 합리적으로 직접 확인될 수 있다. 그러나 과학 이론의 용어들이 세계 속에서 독립적으로 인식 가능한 대상이나 속성 혹은 관계들을 지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러한 입장을 우리는 ‘도구주의적 과학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학관은 그의 주관적 관념론이라는 형이상학적 입장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사물에 대한 객관적 성질과 주관적 성질의 구분이 종류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라면 그의 과학관은 상당히 중요한 함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뉴턴의 역학이 물체의 삼차원적 공간에서만 통용되는 한계를 인식할 때 그의 과학관은 좀 더 진지하게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 ①

